

문학은 사회 현실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1960년대 문단을 달군

순수: 참여 논쟁

황윤진 자유기고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논쟁으로 보는 한국문화사>의 진행을 맡은 나이라입니다. <논쟁으로 보는 한국문화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을 키워드로 잡고, 동일 주제로 한국문화사에서 어떤 논쟁이 오고갔는지 재조명해보는 코너입니다. 첫 방송인 오늘은, 논쟁사 연구가인 황윤진 선생님을 모시고 순수-참여문학 논쟁으로 우리 근현대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윤진 선생님, 올해 초 문학의 정치적 참여를 두고 벌어진 소설가 황석영과 조정래의 논쟁 아닌 논쟁도 있었는데요. 문학에서의 ‘참여’는 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진행에 앞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수-참여문학 논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윤진 우리 근현대문학을 살펴보면 그 출발부터 현실지향성을 띠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 상황에서는 이런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지만,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 상황이 고착되면서 그 흐름이 단절되었습니다. 남북한의 대립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기도 했으므로, 문학도 예외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카시즘적 냉전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문학도 현실적인 발언이나 참여를 금기로 여기게 됐고, 문학은 정치나 이념, 사회상과는 거리를 둔 ‘순수한 예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나간 남한의 상황은 경제적, 정신적인 피폐와 더불어 사회적 모순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를 지나 이승만 독재와 5·16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이 모순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민중의 요구가 바로

4·19였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학의 사회성을 복원하자는 젊은 비평가들의 참여적 발언이 순수-참여문학 논쟁을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문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논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황윤진 네, 그렇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비평사를 살펴보면 순수와 참여는 빠지지 않고 제기되어온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일제강점기 프로문학(프로레탈리아 문학)의 시대인 1920년대부터, 순수문학의 시대인 1930년대를 거쳐, 좌우익의 논쟁이 오간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순수-참여문학 논쟁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문단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학이 지니는 현실인식과 사회비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문인들과, 문학의 독자성과 탈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문인들 사이에서 오간 논쟁이었죠.

진행자 이 방송이 문화교양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참여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진 일단 1960년대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문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도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정도는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고, 해방공간에 좌우익이 대립했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변화하는데, 아무래도 전후인 만큼 사회도 어지럽고 이른바 공산당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 같은 것도 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문학에서도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었지요. 하지만 몇몇 문인들은 한국전쟁 와중에 유입된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아, 문학작품을 통한 작가의 사회참여와 불합리한 사회제도 및 인습에 대한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참여문학론을 제기한 문인들은 이어령, 김우중, 김병걸, 홍사중, 이철범,

정명환, 최일수, 유종호 등이었는데, 당시 문단의 주류였던 순수문학의 허구성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순수문학과의 결별을 주장했지요.

진행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순수문학론을 옹호한 문인들은 누구입니까?

황윤진 이형기, 김상일, 곽종원, 선우휘 등의 주류 문인들이었는데요, 참여문학론을 외래사조에 기댄 반(反)전통론이나 좌경문학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학의 무기능성을 내세운 이형기와, 참여문학이 실존주의 문학과 미국의 신좌익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화할 우려가 있음을 나타낸 선우휘의 반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논쟁은 늘 첨예한 대립을 몰고오기 마련인데, 당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논쟁의 시작이 된 문학평론가 김우중 교수입니다.

김우중

한국문학은 이제 새로운 변신을 요구합니다. 순수의 기치 아래 수십 년간 걸어온 우리 문학은 (...) 대중과 대화가 끊어진 문학,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층의 총애를 받는 치지도 못하는 문학, 그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고고성(孤高性)만을 자부하고 자위하게 된 문학입니다. 지금은 이같은 ‘고고’에 이상 더 집착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 이같은 실패 책임을 추궁하자면 그것은 대부분이 과거 1930년대부터 시작된 순수문학에 귀착하게 됩니다. 한국문학은 그때부터 대중문학과 분가(分家)함으로써 술한 독자와의 연결선을 절단해버렸고 한편 정치적 도구문학을 반대하던 나머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당면현실에 일체 외면하는 경향에까지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는 우선 이 순수의 성벽부터 무너뜨리고, 저 민중의 광장, 현실의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외면하며 미래의 영원에만 살자는 문학, 또는 독자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문학, 또는 자연히 읊조려지는 배설행위만이 오직 예술이라고 고집하는 문학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 결국 이 고민하는 이 땅의 주민들을 위한 문학은 판 대중작가들처럼 그들의 실어(實語)부터 습득한 문학이요, 동시에 그들의 현실을 뛰어들어 일정한 목적의식 아래 조립해나가는 문학입니다. 이 나라에선 목적의식 운운하면, 그 순간부터 문학생명이 반드시 꺼지는 것처럼 인식되어왔지만, 그러한 편견 때문에 우리 문단은 비극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그 주변만을 맴돌고, 핵심을 이탈하여 마침내 독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아와 흑사와 불면과 모멸과 그리고 6·25의 슬픔 등 온갖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민중들에게 이 현실문제의 상담을 거의 거부하고, 그것은 정객들만의 소관이라고 제쳐놓았던 우리들의 '순수'였습니다. (...) 문학이 거의 모든 이 땅의 주민 앞에서 부도수표처럼 냉대받는 처지가 된 것은 지당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순수'에의 결별과 그 방향전환은 이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파산의 순수문학 - 새로운 문학을 위한 문단에 보내는 백서〉, 〈동아일보〉, 1963. 8. 7

황윤진 문학비평가 김우종은 1930년대 우리 문단이 순수문학이었다고 전제하고, 1960년대 당시의 순수문학이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과 민중의 삶을 외면한 점, 건전한 오락도 되지 못한 점,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순수와 결별'을 주장한 그는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 손창섭의 〈포말의 의지〉,

이범선의 〈오발탄〉, 강신재의 〈임진강의 민들레〉, 전광용의 〈꺼삐딴 리〉, 선우휘의 〈도박〉,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정한숙의 〈끊어진 다리〉 등의 작품들을 가리켜 '유적지'라며 통렬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통해 당시 젊은 비평가였던 김우종 교수가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한 '현실참여'의 의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우종 제가 말하는 '현실참여'란 실리적인 것, 획일적인 것, 속물적인 것, 히터니즘(hedonism) 등에서의 귀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이런 것들과 동차원에 위치하면서 이것을 고발하며 규탄하는, 소기하는 작업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의 순수문학 - 새로운 문학을 위한 문단에 보내는 백서〉, 〈동아일보〉, 1963. 8. 7

그리고 유적지라 함은, 한국은 문둥이만 방목하는 섬처럼, 혼자만이 멀리 떠밀려 나가 있는 유적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천형수(天刑囚)들은 핵실험으로 희생된 채 비키니의 짐승들처럼 전화의 상처로 신음해왔으며, 또 굶주림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체면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작가들, 누구보다 먼저 그 슬픔을 통감하고 그 연대적 책임의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작가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호소 작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문학은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순수'라는 애매한 이름 아래 고수되어 온 그러한 문학은. 우리는 이제 이 30년 전통의 문학 방법론에 대하여 아낌없이 수정을 가하고 결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 위에서 우리의 문학을 수립해나가야 합니다.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현대문학〉, 1963. 11

황윤진 김우중이 <파산의 순수문학>을 발표할 무렵, 문학비평가 유중호도 김수영, 전봉건, 신동문의 시를 비평한 <현실참여의 문학>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세대>에 실렸습니다. 이 잡지는 1963년 10월호에 <순수문학이나 참가문학이나>라는 지상세미나를 열어 젊은 비평가들의 의견을 알리게 되는데요. 곧이어 김병걸이 <현대문학>에 <순수문학과 결별>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진만이 <사상계>에 <보다 실속 있는 비평을 위하여>를 기고했고, 최일수의 <종착역의 기수>, 홍사중의 <작가와 현실> 등 참여문학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거나 순수론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본령정계의 문학’을 주장한 작가 이형기의 이야기와 이에 대한 김우중 교수의 반론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형기

제 경우라면 문학을 통해 전달해줄 수 있는 것도 인생 도로(徒勞)의 허망함을 달래주는 여러 가지 장난감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문학이라는 이름의 오락이- 왜냐하면 그 오락은 이 절망적인 역사의 와중에서, 어떠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무엇, 이름지어 생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불어넣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능으로써 생명감을 중시하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정치주의’를 배격하며, 또 스스로 옹호해야 할 가치로서 ‘인간성’을 내세우게 되고 그리하여 객관적으로는 ‘본령정계(本領正系)의 문학’이라는 이름을 지어받을 수 있습니다.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 순수 옹호의 노트>, <현대문학>, 1964. 2

김우중

중요한 것은, 문제 제시에만 그치지 말고 스스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절망의 영토 위에 도표를 박아놓는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황윤진 순수문학은 ‘정치와의 절연’이나 ‘현실외면’이 아닌, 정치주의를 반대하는 문학이고, ‘본령정계의 문학’은 결국 생명감과 인간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작가 이형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참여론자들은 순수문학과 현실외면을 등식으로 엮고 있으나 ‘정치와의 절연’이라는 식의 논리변조는 양자택일식 사고의 소산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정치주의는 구별돼야 하고 순수문학 역시 정치주의를 배격한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라며, 문학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아니며 참여론이 보이는 역사에서의 낙관론은 실제 역사나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황한 이야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우중 교수는 현실참여론과 도구문학은 전혀 다르며, 좌익문학과 현실참여론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레드콤플렉스에 기인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1964년 <현대문학> 5월호에 <저 땅 위에 도표를 세우라>를 기고해 이형기 작가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당의 문학’과 순수문학의 논쟁은 해방공간이 아니라 이미 1930년대에 마무리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학을 목적수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정치주의와 현실참여를 논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은 현실의 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의 단계에까지 나아가 한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반공논리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고, 일부 문학인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현실참여론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인 서정주로, “어쩐지 안심치 않다”는 언

급 하나로 문단의 주류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황 선생님 말씀대로 남한 시단의 대표주자인 시인 서정주는 1963년 <세대> 10월호에 게재한 <사회참여와 순수개념>이라는 글에서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경향파문학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를 통시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여문학이 “어쩐지 안심치 않다”는 노회환 표현으로 남한 문단 주류의 편치 않은 심사를 드러냈습니다. 이 역시 반론을 불러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황윤진 시인 서정주는 이 글에서 “순수문학만이 ‘작품이란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우리 문학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1920년대 사회주의와 사회참여가 갖는 한계에 대해 “동양적 재래 전통정신을 무시하고 단절한 것과 이 시기 지식분자들의 구미사조에 대한 소화부족”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번 지핀 불씨가 다른 불씨로 이어지듯, 문학평론가 홍사중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1964년 4월, <한양>이라는 잡지에 ‘서정주 씨의 글을 읽고’라는 부제가 붙은 <작가와 현실>이란 글에서 “작가가 현실에 대하여 투철한 관심, 곧 현실감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문학은 사회의 한 표현이다’라는 드 보날의 말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논지였습니다. 이 글은 시인 서정주의 순수 옹호를 독선으로 간주하고, 우리 문학이 보여준 ‘순수에의 지향’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일제의 탄압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참여 속의 현실개념은 정치적 개념으로만 잘못 인식돼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순수문학은 그 형성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고 현대에 있어 인간의 해석은 현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제까지 들어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형기, 김우중, 서정주, 홍사중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논쟁은 당시 시대현실에 대한 문학인들

의 고뇌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196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이 사회참여 논쟁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좌익문학인들이 보여준 정치주의나 목적문학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겠는데요. 청취자들을 위해 이 부분을 보다 정확히 요약해주신다면? 아울러 이 논쟁이 지닌 의의가 있을 텐데요, 설명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진 참여론자들의 주장은 ‘문학은 현실에 적극 응수해야 한다’고, 순수론자들의 주장은 ‘시대나 역사에 대한 뚜렷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참여는 정당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내용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겠지만, 배경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즉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의미가 큰 것이지요. 민중적 힘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준 4·19를 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논쟁이었고, 문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논쟁이 가져온 이후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황윤진 그 당시나 이후나, 논쟁의 끝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니다. 어느 누가 논쟁을 끝낼 만큼 명확하게 이겼거나 지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평행선을 긋듯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은 나름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수론자들이 문학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은밀히 사회주의 문학의 논리로 연결시키려 한 부분입니다. 참여론자들이 기를 쓰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와 구별 지으려던 이유를 짚어보면 시대상황이 주는 아픔마저 느껴집니다. 냉전의식의 중압감과 진보적 문학론의 이론적 한계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습니까. 그런데, 이 논쟁은 다시 1967년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1967년 10월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 주최의 원탁토론이었습니다. 불문학자인 김봉구 교수의 주장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봉구 작가는 자기 본령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뛰어들어 창조적 자아를 자승자박하느니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전인격적인 개성과 창조적 자아에 충실함으로써 선입견이나 조작 없이 작품 속에 ‘나’를 송두리째 투입시키는 성실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황윤진 ‘작가와 사회’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뤄진 김봉구 교수의 주장은 같은 해 <세대>지 12월호에 실렸다가, 다시 <작가와 사회 재론>이란 제목으로 바꾸고 논쟁을 부분을 보완해서 1969년 <아세아>지 2월호에 게재됩니다. 위의 녹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참여론에 대한 공박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작가에게는 두 가지 자아, 즉 사회적 자아와 창조적 자아가 있다”며 이들이 상호보완이나 갈등관계가 사르트르, 카뮈 등 프랑스작가에게는 어떤 문학, 어떤 세계를 갖게 했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것이 사르트르였는데요, “사회적 자아가 강조될 때는 창조적 자아는 도리어 위축된다”며 어설픈 사회참여가 작가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사르트르가 미친 영향이 몹시 크군요. 앞서 김우중 교수가 제기한 근거도, 김봉구 교수가 제기한 근거도 사르트르고, 두 가지 입장에서 서로 다른 논지를 펼치니 말입니다,

황윤진 1967년의 이 논쟁은, 1960년대 초의 순수-참여논쟁보다 발전적이었습니다. 지식인, 특히 문인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당시 어느 논쟁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으니까요. 당시 원탁토론회에 참여했던 문학평론가 임중빈은 ‘김봉구 교수의 소론에 이의 있다’는 부제를 단 <반사회참여의 모순>이라는 글로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대한일보> 1967년 10월 17일자에 게재된 이 반론과 앞서 말씀드린 김봉구 교수의 논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봉구 작가가 참여문학을 표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데올로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지식층의 사회적 기능은 한 시대의 이론적 질서와 가치관의 정립을 옹호하고 사회현실의 비판을 하는 데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바른 뜻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사물과 분리된 자율기호인 언어가 논리적 연결을 이룬 하나의 기구일 뿐이므로, 사물 자체에 더 집착해야 하는 작가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작가와 사회 재론>, <아세아>, 1969년 2월호

임중빈 “작가가 이론화한 앙가주망이나 참여문학을 표방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데올로기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는 김 교수의 단도직입적인 선고야말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데올로기 노이로제 증세가 아닌가. 우리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서구작가, 특히 생텍쥐페리나 카뮈식의 참여는 당위성이 없으며, 창조적 참여의 근거는 살아있는 ‘민중적 자아’ 곧 ‘우리로서의 나’의 진지한 확립에 있다. <반사회참여의 모순 - 김봉구 교수의 고론에 이의 있다>, <대한일보>, 1967. 10. 17

황윤진 임중빈의 이 반론을 본 소설가 선우휘는 김봉구 교수의 입장을 지지, 동조하는 글을 게재해서 소설가 이호철의 반론을 이끌어내는 등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습니다. 이호철은 “작가는 그가 처한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작가의식을 지닐 뿐이며 이 의식을 참여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작가의 현상이 아닌 세속의 현상의 논리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우휘

문학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문학창조에 있어 자유의 폭을 넓히는 길이다. ‘씨지지도 않는 것을 씨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참여론이 대상으로 하는 현실은 38선 이북까지 포괄하는 현실인가, 아니면 남한만의 것인가를 뚜렷이 구분지를 필요가 있다. <문학은 씨먹는 것이 아니다 - 사회참여문제 재대두를 계기로>, <조선일보>, 1967. 10. 19

이호철

작가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도덕적 위기나 사회적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전제에 사로잡힘이 없이 순수하게 제 나름대로의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좌파의 의미로건 우파의 의미로건 이데올로기라는 고식적이고 생경한 악마가 끼어드는 것을 작가들은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 <작가의 현장과 세속의 현장 - 김봉구-선우휘 씨 소론에 대한 의견>, <동아일보>, 1967. 10. 21

황윤진 이런 논쟁에 대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철범은, <한국적 상황과 자유문제설정부터 올바르게>라는 글에서 문학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모럴과 ‘계급투쟁의 문제’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서로 구분돼야 하며, 사르트르의 앙가주망이론은 그의 유물론과 혁명의 허위에 대한 비판 때문에 우리의 경우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한국의 참여문학은 우리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서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논쟁을 살펴보면 김봉구와 선우휘의 주장은 순수론자에 속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과 세 해 전의 논쟁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참여론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황윤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참여론 논쟁은 세 가지의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이어령과 김수영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불온시’ 논쟁인데요, 문학과 정치의 관계, 문학의 정치성(불온성)으로 이어지면서 순수-참여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논쟁은 선우휘가 ‘불온시’ 논쟁의 김수영을 비판하면서 보수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참여적 진보 지식인을 비판하고 나서, 박태순의 <젊은이는 무엇인가>와 원형갑의 <지식인과 지적 마조히즘> 등의 반론을 불러일으킨 일을 말합니다. 셋째는 1971년 5월 <참여문학의 자기 미망>이라는 글을 비롯해 지면에서 참여문학을 혹독하게 비난한 김양수의 소론과, 그에 반박해 <참여문학은 시녀인가>를 쓴 최일수와 <사회성과 의식의 상상>을 쓴 김병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1969년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김양수는 참여문학이란 한낱 유행풍조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성’이란 명령에 사로잡혀 문학의 자기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의 오해와 오독이라며 사회성과 자율성을 다 같이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김양수의 의견을 일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1970년대까지 이어진 이 논쟁은 아무래도 1980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후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진 이렇게 작가와 비평가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해지자 불문학자며 문학평론가인 김현 교수가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 김봉구 교수를 둘러싼 글을 읽고>라는 주제로 정리에 나섭니다. 그는 김봉구가 우리 문학에 제기한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작가의 형성이 선협적인 성격에 의해 지배되는가’, ‘창조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구분이 서구시민사회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서구의 이데올로기가 자율적 기호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사실이 그와

김현

다른 언어구조를 지닌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였습니다. 김현 교수는 그동안의 논쟁에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논쟁은 발상법부터가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이지요.

참여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이 혼란된 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밝히는 고고학적 노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작가들로서도 어떻게든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게 마련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건강하게 발상법의 차이를 밝혀내고 애를 쓰는 것만이 한 사회의 정확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임무로 삼는 작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황윤진 김현 교수의 지적처럼 이 논쟁들은 쟁점이 모아질 않았을뿐더러, 논리를 깊이 있고 치밀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채 끝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사상>지에서 선우휘와 백낙청의 지상토론이 벌어지고, <조선일보> 지면에서 한판을 겨룬 김수영과 이어령 논쟁, 그리고 흥사단 금요강좌에서 있었던 정명환의 순수 문학 비판 등으로 끝없이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학은 사회 현실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름대로의 응답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논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전쟁과 냉전의식으로 거세됐던 문학의 현실 대응력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1980년대로 향하는 리얼리즘론의 관문을 형성하고 비평정신을 기르면서 진보적 문학을 부활시키는 기반이 됐으니 말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